



설날을 맞아 할아버지의 고향에 온 세진이!
 동갑 친척 무진이를 만날 생각에
 밤을 꼴딱 넘어도 설레는 마음뿐이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달라도 너무 다르지 뭐예요?
**부산과 온성만큼 먼 두 사람 사이가
 정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KC **값 12,000원**
 9 791197 224027 77340
 ISBN 979-11-972240-2-7
 KC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의미합니다.

통일부
 국민통합과
 화합
 04

그래!
 달라도
 괜찮아!

통일부
 국민통합과
 화합

통일부
 국민통합과
 화합

통일 그림동화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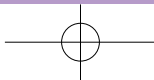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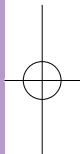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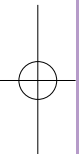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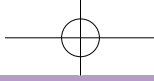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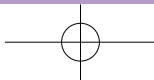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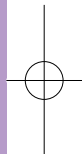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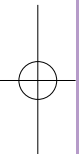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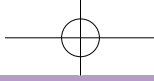
달라도 괜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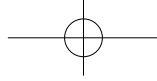
예영 글 | 박영 그림



통일부
 국민통합과
 화합







그래! 달라도 괜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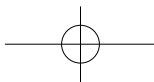
예영 글 | 박영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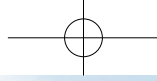




부산 | 온성
방면 | 방면

설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세진이네 가족은 부산역에서 밤 기차를 탔어요.
이번 설날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고향인
함경북도 온성에서 보내기로 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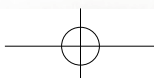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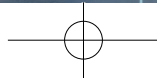
기차는 열 시간이 넘도록 달려 아침이 되어서야 도착했어요.
온성역에 내리자 찬 바람이 휘잉 소리를 내며 달려들었어요.
“웃, 추워.”
부산보다 한결 추운 온성 날씨에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그러나 차가운 만큼 맑은 공기가 무척 상쾌했지요.
세진이는 역 앞으로 마중 나온 종숙부*의 차에 올라탔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보자 할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살던 온성에는 높다란 산과 넓은 들이 아주 많지.
하얀 눈이 쌓이면 한 폭의 그림이 따로 없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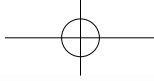
*종숙부 : 아버지의 사촌 형제.





세진이는 가장 보고 싶던 무진이를 단번에 찾아냈어요.
사진에서 본 것보다 까무잡잡하고 머리가 짧았어요.
거기에 다부진 체격까지, 꼭 차돌맹이 같았지요.
이쪽을 바라보는 무진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무진이는 나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세진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안녕? 만나서 반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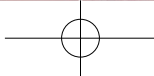
그런데 무진이는 손을 잡지도 않고 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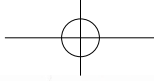
“만나서 반갑다.”

무뚝뚝한 표정과 말투가 어쩐지 썩 반기는 기색이 아니었지요.

세진이는 머쓱함을 감추려고 얼른 준비해 온 선물을 건넸어요.

또래 친구들한테 인기 있는 게임기니까 분명 좋아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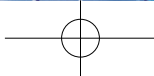
세진이의 생각과 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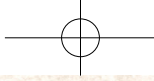
이번에도 무진이는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떨렁하게 한마디만 하고 선물은 풀어 보지도 않지요.

‘선물은 보는 앞에서 풀어 보고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세진이는 서운하지만 참았어요.

아마 무진이는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는 성격인가 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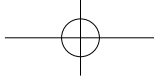
어른들이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들어가자
무진이가 세진이의 가방을 덩석 들고 방으로 안내했어요.
무진이의 방은 반듯반듯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복잡하고 너저분한 세진이의 방과는 판판이었지요.
신기한 듯 방 안을 구경하는데 책상 밑에 뭔가 떨어져 있었어요.
“수학 시험지네?”
무진이가 냅کم 시험지를 집어 등 뒤로 감췄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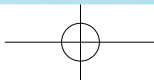


세진이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수학 싫어하는구나? 나도 수학 못해서 엄마가 많이 걱정하셔.”
 무진이가 손으로 머리를 긁적거렸어요.
 “우리 엄마는 아예 포기하신 것 같아.”
 세진이는 무진이와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우리 둘 다 수학을 아주 싫어해!’





세진이네 가족이 집을 풀자
본격적인 설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차례 상에는 부산 음식과 함경도 음식을 함께 올릴 거래요.
부엌에서 익숙한 음식 냄새와 낯선 음식 냄새가 퍼져 나왔어요.





세진이와 무진이는 젓가락과 입을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이야, 가자미식해가 이런 맛이구나. 기가 막혀!”

“부산식 굴떡국은 딱 내 입맛이야!”

세진이는 무진이와의 공통점을 또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 둘 다 먹는 걸 엄청 좋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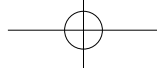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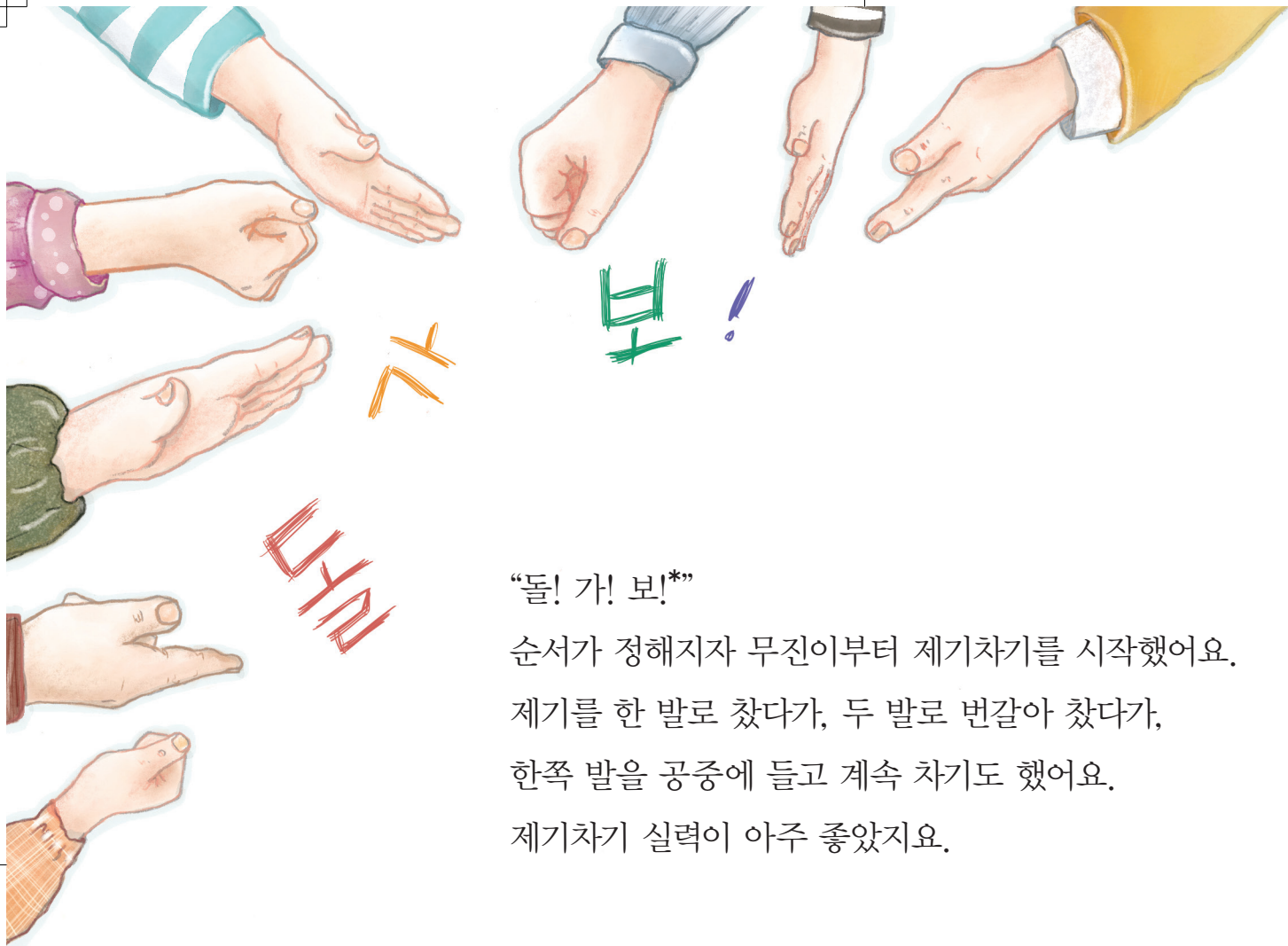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고 나자 갑자기 바깥이 떠들썩했어요.
“멀리서 반가운 손님이 왔는데 잔치가 빠질 수 없지!”
이곳은 명절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벌인대요.
음식을 나눠 먹고, 윷놀이나 씨름 같은 놀이도 하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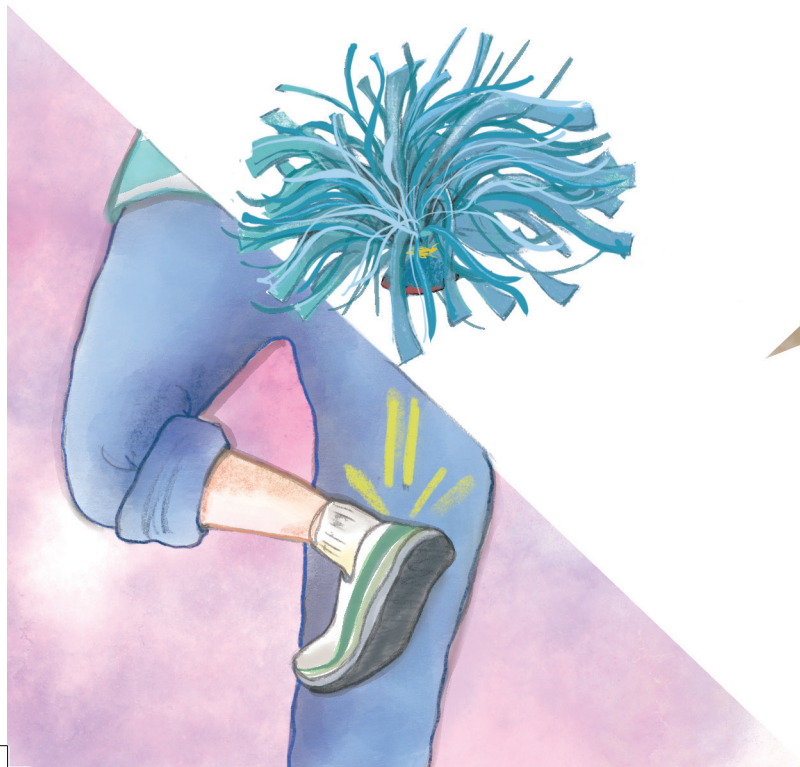
세진이도 무진이의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어요.
함께 자치기도 하고, 팥이치기도 했답니다.
“컴퓨터 게임보다 훨씬 재미있는걸?”
추워서 귀가 빨개지는 줄도 모를 만큼 신이 났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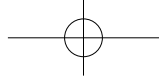


“돌! 가! 보!”

순서가 정해지자 무진이부터 제기차기를 시작했어요.
제기를 한 발로 찼다가, 두 발로 번갈아 찼다가,
한쪽 발을 공중에 들고 계속 차기도 했어요.
제기차기 실력이 아주 좋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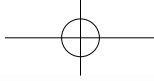


*돌가보: '가위바위보'의 북한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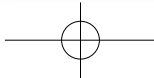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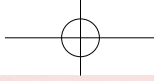
그런데 조금 이상했어요.
 무진이가 땅으로 떨어지려는 제기를
 자꾸만 손으로 잡는 게 아니겠어요?
 세진이가 급하게 손을 들며 외쳤어요.
 “자, 잠깐! 그건 반칙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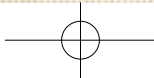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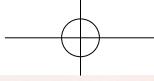
세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헛, 자기 동네 규칙만 최고인가?’
 남의 동네 규칙은 무시하고
 무조건 여기 규칙을 따르라는 말에
 자존심이 상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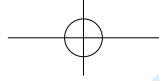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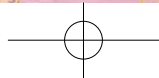
결국 제기차기 내기가 멈추고,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시무룩한 무진이를 보니 세진이도 마음이 무거웠지요.
‘먼 길을 와서 만난 친구들인데 참을 걸 그랬나?’
그때 모두가 맛있게 먹고 있는 만두가 눈에 들어왔어요.
부산의 조그만 만두와 함경도의 커다란 만두,
그리고 세진이가 만든 중간 크기의 만두가요.
갑자기 머릿속에 번쩍!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 크기는 제각각이어도 맛있다는 건 변함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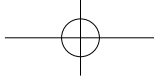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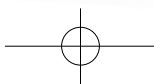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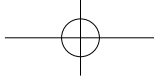
다시 기분 좋게 제기차기가 시작되었어요.
다들 딱밤 때릴 생각을 하며 열심히 제기를 찼지요.
무진이와 세진이는 똑같이 50개를 차서 일 등을 차지했어요.
세진이는 무진이와의 공통점을 또 하나 발견했답니다.
'우리 둘 다 제기를 끝내주게 잘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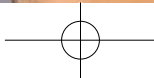
어느새 설 연휴가 끝나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다음 명절에는 무진이네가 부산에 오기로 약속했지요.
물론 세진이와 무진이는 그때까지 기다리지만은 않을 거예요.
“여름 방학에 꼭 다시 만나자!”
“물론이야!”
세진이는 못내 아쉬운 마음으로 차에 올랐어요.
그때 무진이가 씩스러운 표정으로 작은 꾸러미를 내밀었어요.





“...고마워.”

세진이는 너무나 좋았지만
이 한마디만 간신히 했어요.
선물은 보는 앞에서 풀어 보고
기뻐해야 하는데.....
왠지 마음이 뭉클하고 벅차올라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온성역에 도착한 세진이네 가족은 부산행 기차에 올랐어요.
기차는 밤을 달려 내일 아침에나 도착할 거예요.
옆에 앉은 부모님이 잠들자
세진이가 가만가만 선물 꾸러미를 풀었어요.
꾸러미 속에는 무진이가 직접 만든 제기와 편지가 들어 있었지요.

세진아,

잘 가고 있니?

게임기 선물 고마워.

너무 좋아서 잠도 못 잤어.

내가 만든 제기도 네 맘에
들었으면 좋겠어.

이 제기로 차면 제기차기 달인이
될 거야.

참, 다음 명절에 가면 네 친구들이랑

무릎싸움하자.

- 무릎싸움의 달인

무진이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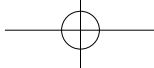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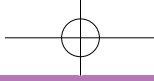




세진이는 편지를 보며 생각했어요.
'무릎이네랑 우리 동네 무릎싸움* 규칙이 똑같은까?'
뭐, 다르면 어떨까요?
제기차기할 때처럼 서로 잘 맞는 규칙을 새로 만들면 되지요.
“그래! 달라도 괜찮아!”

*무릎싸움: '닭싸움'의 북한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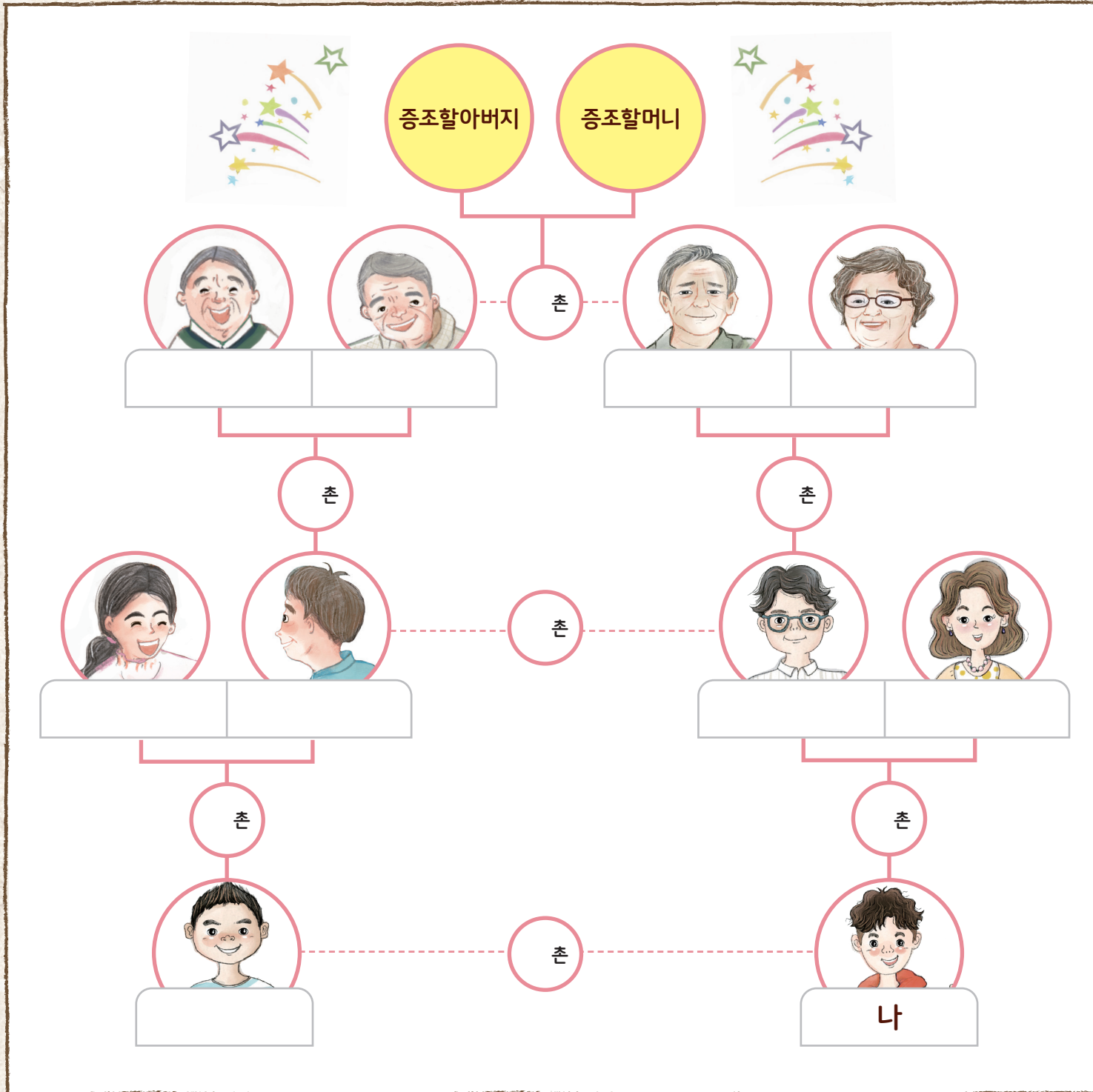
1

신나는 설날을 맞아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였어요! 다들 무얼 하며 놀고 있는지 알맞은 놀이 이름을 써 보세요.



2

세진이네 가족 관계도를 보고 세진이가 불러야 할 친척들의 호칭과 촌수를 계산해 보세요.*



*도움말 : 조부모와 부모, 조부모와 나처럼 위아래로 이어지는 직계 가족은 모두 1촌입니다. 또한 형제나 자매, 친척처럼 옆으로 이어지는 방계 가족은 각각의 숫자를 더하여 촌수를 계산합니다.



3

아래 보기에서 한반도 남쪽 부산과 한반도 북쪽 온성에 어울리는 특성을 찾아 알맞게 적어 보세요.*

보기

함경북도, 광역시, 산, 바다, 낙동강, 두만강, -13°C (1월 평균 온도), 2.2°C (1월 평균 온도)
 22.2°C (8월 평균 온도), 25.4°C (8월 평균 온도)

온성

부산

*도움말 : 바다와 가까운 해안 도시는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육지 도시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4 상에 차려진 다양한 명절 음식이 부산과 온성 중 어느 지역의 음식인지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





부르는 말은 달라도 뜻은 하나! 우리말과 같은 의미의 북한 말을 연결해 보세요.

귀고리



과일단물

떡고물



들가방

종착역



양복적삼

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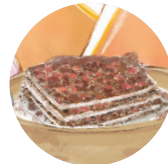
떡보숭이

손가방



마감역

블라우스



귀에고리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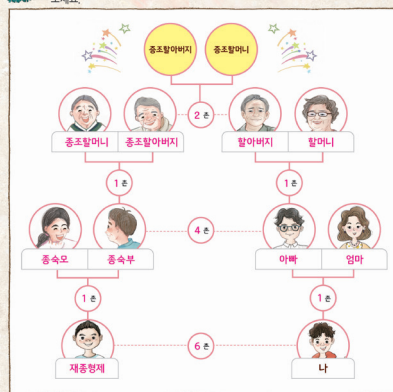
1

1 신나는 설날을 맞아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였어요! 다음 무렵 하며 놀고 있는지 알맞은 놀이 이름을 써 보세요.



2

2 세진이네 가족 관계도를 보고 세진이와 풀리아 할 친척들의 호칭과 손수를 계산해 보세요.*



*호칭 및 친척의 세대, 호칭은 나이와 무관하며, 아버지는 차가 가까운 쪽으로 따집니다. 또한 할머니, 차제 친척(할아버지, 어머니)은 아버지는 차가 가까운 친척의 손수를 대하여 손수를 계산합니다.



3

3 아래 보기에서 한반도 남쪽 부산과 한반도 북쪽 온성에 어울리는 특징을 찾아 알맞게 적어 보세요.*

보기

함경북도, 광역시, 산, 바다, 낙동강, 두만강, -13°C(1월 평균 온도), 2.2°C(1월 평균 온도), 22.2°C(8월 평균 온도), 25.4°C(8월 평균 온도)

온성

함경북도, 산, 두만강
-13°C(1월 평균 기준),
22.2°C(8월 평균 기준)

부산

광역시, 바다, 낙동강
2.2°C(1월 평균 기준),
25.4°C(8월 평균 기준)

*호칭 및 1촌과 2촌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아버지(할아버지)와 어머니(할머니)를 말합니다. 3촌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아버지(할아버지)와 어머니(할머니)의 손수를 대하여 손수를 계산합니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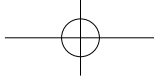
4 상에 차려진 다양한 명절 음식이 부산과 온성 중 어느 지역의 음식인지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



5

5 부르는 말은 달라도 뜻은 하나 우리말과 같은 의미의 북한 말을 연결해 보세요.





QR 코드를 찍으면
《이헤리와 리헤리》의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QR 코드를 찍으면
《캠핑 가는 날》의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QR 코드를 찍으면
《사라진 마법의 구슬》의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QR 코드를 찍으면
《캠핑 가는 날》의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습니다.



QR 코드를 찍으면
《사라진 마법의 구슬》의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습니다.



통일 그림동화 04 그래! 달라도 괜찮아!

글 예영 그림 박영

발행처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소통협력부 연구개발과(담당 이선미)

주소 01018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전화 02-901-7163 홈페이지 www.uniedu.go.kr

편집 · 디자인 · 제작 주니어김영사 031-955-3100

발행일 2021. 11.

ISBN 979-11-972240-2-7



이 책은 친환경적으로 개발·관리된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사용한 제품에만 부착되는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국제산림관리협의회) 인증을 받은 친환경 용지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친환경 공기를 잉크로 인쇄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한 표시사항

제품명 도서 제조년월일 2021년 11월 30일 제조사명 김영사 주소 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97
전화번호 031-955-3100 제조국명 대한민국 ▲주의 책 모서리에 찍히거나 책장에 베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